

## 대구지방변호사회 “위안부 할머니와 日 시마네현 의회 방문” ‘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시정 요구 결의문’ 채택 격려 차원

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시정 요구 결의문’ 채택과 관련(본지 6월 27일자 2면 보도)해 시마네현 의회를 전격 방문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5일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핵심 지역이었던 시마네현이 최근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내각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을 알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시마네현을 한일 간 문제를 푸는 화해의 전략 지역으로 삼기 위해 시마네현 방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번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방문단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표해 이용수(86) 할머니와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문일 변호사, 독도위원회 위원인 박현상 변호사 등으로 꾸러지고, 이달 중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시마네현 의회 의장을 비롯해 결의문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원, 결의문 채택을 촉구한 여성인권단체인 ‘신일본부인모임 시마네현 본부’ 회장 등을 만나 결의문 채택에 대해 직접 환영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방문을 위해 최근 시마네현 의회 의장에게 감사 서신을 보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인 만큼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입각해 문제에 대응해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줘 고맙다”며 “우리는 이웃나라이고, 앞으로도 협력해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하는 관계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의견서 채택에 큰 힘을 쓴 의장님을 한 번 만났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번 시마네현 방문이 일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위안부와 관련해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시모토

망언 등의 뿌리가 된 2007년 아베 내각의 의회 [답변서](#)(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철회시키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봉태 변호사는 “이번 시마네현의 방문 목적은 ‘심세득인(審勢得人), 즉 ‘정세를 살피고 사람을 얻기 위함’으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입장을 표명한 시마네현 의회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를 통해 독도 문제도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대구변호사회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시마네현 의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고 ‘득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 방문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mailto:hoper@msnet.co.kr)

[이용수 할머니의 편지]

시마네현 의회 의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시마네현 의회 의장님.

저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입니다. 이번에 시마네현에서 '신일본부인모임 시마네현 본부'에서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내각에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입각해 문제에 대응해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이용수는 15 살에 밤에 끌려가서 대만에 있는 '신죽' 가미가제 부대로 갔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산 증인인 저 이용수가 살아있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저는 86 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할머니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이고 앞으로도 협력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의견서 채택에 큰 힘을 써주신 의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만나주실는지요?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이용수 드림

매일신문 공식트위터 @dgtwt / [온라인 기사](#) 문의 maeil01@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13 년 07 월 05 일 -

大邱地方弁護士会，“慰安婦お婆さんと島根県議会訪問”

日本軍慰安婦お婆あさんと大邱地方弁護士会が日本国島根県議会の“安倍内閣慰安婦関連 是正決意文”採択と関連(本誌 6 月 27 日の 2 面に報道)し、島根県議会を訪問することとしたのが目を引いている。

大邱地方弁護士会(会長ソクワンギ)は、5 日、独島問題で韓国と日本間の葛藤の核心地域だった島根県が、最近日本軍慰安婦問題と関連、安倍内閣に是正を求める意見書を出したことを知り、島根県を 韓日両国間の問題を解決する和解の戦略地域とするため島根県の訪問を決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

今回の日本島根県議会訪問団は、李・ヨンスさん(86 才、慰安婦お婆あさん代表)と、崔・ボンテ弁護士 (大韓弁護士協会日帝被害者特別委員会委員長)、バン・ムンイル弁護士 (大邱地方弁護士会独島特別委員会委員長)、パク・ヒョンサン弁護士 (独島委員会委員)等のメンバーで今月中訪問を予定している。

大邱弁護士会は今回の訪問で島根県議会議長をはじめ決意文採択に核心的な役割をした委員、決意文採択を促した女性人権団体の“新日本婦人会島根県本部”会長に会って決意文採択に対して、直接歓迎と励ましをする予定。

リ・ヨンスさんは今回の訪問のために最近島根県議会議長宛に感謝のお手紙を送り“慰安婦問題は日本の責任であるだけに、強制動員を認めた河野談話に立脚し、問題に対応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書を採択してくれたことに感謝していると言う。“私たちは隣国であり、これからも協力しあい、明るい未来へ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なので、慰安婦被害者たちがまだ生きている内に、この問題が正しく解決されるという念願を込めて今回の意見書の採択に大きな力になりました議長様に一度お会いしたいと伝えました。

大邱弁護士会は今回の島根県の訪問が日本のほかの地方自治団体も慰安婦に関連してこのような決意文が採択される雰囲気を作成し、橋下さん妄言等の根元となった、2007 年安倍内閣の議会返答書(強制性を認める証拠がない)を撤回させる手がかりを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チェ・ボンテ弁護士は“今回の島根県訪問目的は、『審勢得人』、つまり、情勢を探って人を得る為”であり、慰安婦問題において望ましい立場を表明した島根県議会に対して激励とともに、これを通じて独島問題の解決にもつながってほしいと言って、大邱弁護士会が独島問題の解決の方法を悩んでいたところ、島根県議会が慰安婦問題と関連した決意文を採択したという情報に接し、“得人”できるよいチャンスだと判断、訪問を企画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

「リ・ヨンスさんの手紙」

島根県議長様へ

はじめまして

私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リ・ヨンスと申します。

この度、島根県で“新日本婦人会島根県本部”が提出した請願書に“慰安婦問題は日本の責任であり、安倍総理内閣に強制動員を認定した河野談話に立脚して問題に対応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書を採択して頂き、真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私リ・ヨンスは15歳の時、ある日の夜中に、引き連れられ、台湾にあった神風部隊にいきました。

現在も歴史の生き証人である、私、リ・ヨンスが生きています。今年、韓国の年で86歳です。他のおばあさんたちもほとんど高齢で、健康状態が良くない方が多いです。

私の念願はこの問題を平和的に解決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はお隣国で、今後とも協力しあい、未来に向けて一緒に進むべきではありませんか？

被害者が生きている間にこの問題が正しく解決されたらという念願を込めて、今回の意見書の採択に大きな力を使って頂いた議長様にお会いして感謝言葉をお伝えしたいです。ぜひ返事がいただければ喜び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